이웃돕기 위해 애장품 내놓은 스님들

빛고을나눔나무, 10월 26일 경매 후원금 모금행사

실내등 · 휘호 등 8점 출품돼
1100여 만원 경매 통해 모금
국내외 어린이 후원 등 사용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스님들이 애장품 경매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 마련에 나서 화제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 부설기관인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중현)는 10월 26일 광주 수자타 야외무대에서 '붓다의 선물' 후원행사를 개최했다.

스님들의 애장품 경매와 미얀마 어린이 · 청소년 구호현황을 확인했던 이날 행사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 법륜사 주지 월인 스님, 신광사 주지 동현 스님,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중현 스님을 비롯해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등 100여 명의 후원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코로나19로 야외에서 진행된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인사말, 환영사, 축사, 빛고을나눔나무 사업영상 상영, 경매, 이야기 손님(효진 스님, 前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지부장), 축하공연, 결과보고 영상 등으로 이어졌다.

스님 애장품 경매는 전체 8점의 물품이 전문 진행자에 의해 진행됐다. 이날 애장품은 도성 스님(실내등), 도계 스님(글씨 2점), 법안 스님(물품 2점)을 비롯해 이규형 작가와 석인 스님 등이 내놓았으며, 경매를 통해 후원자에게 전달됐다.

이날 후원행사를 통해 모연된 기금 1100여 만원은 목적사업인 승보공양, 어린이 · 청소년 지원사업(국내외), 불교뱅크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경매라는 낯선 방식의 후원 행사 때문에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도 많은 걱정이 있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경매가 시작되면서 수십 번의 호가와 흥미를 더하는 진행, 이에 호응하는 구입자가 어울려 당초 계획을 넘어선 재미와 후원금을 같이 얻었다는 평가다.

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지난 2019년부터 지원하는 미얀마는 불교국가이지만 최근 쿠데타와 군부 독재의 양민 학살로 인해 다시 고통받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게 됐다. 어른들도 이런 환경에서 힘들어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여건은 더욱 절망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후원행사를 통해 지원하는 대형정화시설은 1000여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식수로 마시게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빛고을나눔나무는 10월 26일 스님의 애장품을 경매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는 '붓다의 선물' 후원행사를 개최했다. 도계 스님〈사진 왼쪽〉의 소장품인 휘호를 낙찰받은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사진 오른쪽〉의 모습.

상임이사 중현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빛고을나눔나무는 광주불교연합회 부설기관으로 지난 2014년 11월 창립을 해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사단법인 등록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공익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며 "여러 후원자 여러분에게 깊은 존경과 환영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불교종립 정광중, 다목적 로터스관 개관

1층 급식소 · 2층 강당 구성
전교생 공동체 행사 가능해

광주 유일 불교종립 학교인 학교법인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정광중학교(교장 유재순)가 다목적 시설인 로터스관을 개관했다.

정광중학교는 10월 27일 교내 다목적 시설 로터스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습 환경 개선을 통해 편안한 면학분위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개관한 로터스관은 1층 급식소와 2층 다목적 강당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공간이다.

급식소는 전체 650㎡에 300여 석으로 학생 · 교직원 식사공간과 최신식 조리시설을 갖춘 공간이다. 2층 920㎡의 다목적강당은 전교생 공동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강당과 체육활동을 겸한 장소로 활용된다.

로터스관은 지난해 1월 교육부 특별보조금 25억 원과 광주시청, 광산구청 보조금을 포함해 29억 9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2021년 2월 본공사를 시작해 지난 8월에 완성해 이날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덕문 스님을 비롯해 법인 이사인 무공 스님(백양사 주지), 만당 스님(불갑사 주지), 석장 스님(문빈정사 주지), 중현 스님(증심사 주지)과 前 정광학원 이사장인 원일 스님(나주 미륵사 주지), 김삼호 광산구청장, 김동철 前 국회의원 등 광산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참여해 진행됐다.

유재순 교장은 기념사를 통해 "로터스관은 미래의 꿈을 피우는 인재들의 학습터로 쾌적하고 깨끗한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이자 심신수련의 장소가 될 것이다.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사장 덕문 스님은 축사를 통해 "정광중학교는 75년 전통을 자랑하는 중등교육의 요람으로써 불교정신에 입각한 인재양성에 정진하고 있다"면서 "로터스관을 통해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한 인성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더욱 알찬 교육의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개관을 위해 헌신한 원일 스님, 김동철 前국회의원, 김익주 · 김학실 시의원에 대한 공로패 증정도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10월 27일 열린 정광중 로터스관 개관식에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법화경 백일기도 회향 및 가람재

경북불교대학, 10월 23일 봉행

대구 수성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학장 돈관)은 10월 23일 3층 대법당에서 〈법화경〉 백일기도 3차 회향 및 가람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가람재는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장 돈관 스님을 법사로 선정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이수자)의 집전으로 봉행됐다. 시련을 시작으로 대령 관욕과 상단헌공 봉송 순으로 장엄하게 진행됐다.

경북불교대학장 돈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도량안정, 대중화합,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결계도량에서 선근을 지어 각자의 위치에서 수행과 기도로 인간 본연의 자세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참된 주인공이 되길 서원한다"고 설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태고종은 10월 28일 순천 선암사에서 제46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이날 수계산림을 통해 50명의 새로운 출가수행자가 탄생했다.

"인천의 사표가 되소서"

태고종, 선암사서 합동수계산림

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은 10월 28일 순천 선암사(주지 시각)에서 제46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이날 수계산림을 통해 50명의 새로운 출가 수행자가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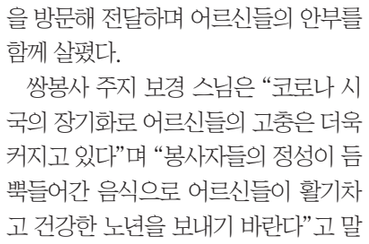
이날 수계를 받는 50명(사미 36명, 사미니 14명)은 지난 9월 28일 입소하여 31일간 기초습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예불 및 불교의식 습의와 종지 · 종풍과 종단사 교육 이수, 울력 등을 진행했다.

산림법회에는 총무원장 호명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 호법원장 혜일 스님이 삼사로 참여하고, 법안 스님(교육원장), 재홍 스님(고시위원장), 혜주 스님(법규위원장), 상진 스님(동방대학장), 성오 스님(행정부원장), 법경 스님(포교원장), 도안 스님(충북종무원장)이 칠증사를 맡아 증명했다.

교수 우수자 시상에는 최우수상에 선명, 우수상에 법연, 모범상에 수산, 공로상에 해오, 법경 사미(니)가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안 쌍봉사 봉사단 밑반찬 나눔 봉사

어르신 자택 직접 방문 전달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만복의 소리 봉사단'이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사진〉

쌍봉사 만복의 소리 봉사단은 10월 2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식사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어르신 30가구에 총각무김치, 시래기된장국, 달걀곤약장조림의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번 반찬 나눔 봉사활동은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과 협업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세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복지시설 휴관 등으로 식사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쌍봉사의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진행된다. 완성된 밑반찬은 봉사자들이 직접 어르신 자택을 방문해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함께 살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코로나 시국의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고충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봉사자들의 정성이 듬뿍들어간 음식으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